향토 문화

신안의 독립 만세

編 輯 者

신안군의 3·1 운동은 3월 18일에 장산도(長山島)에서 처음 일어났다.

3월 18일 정오 경에 장산도의 유지 30여 명은 도창리(道昌里)에 있는 높은 언덕 위에 모여 독립 경축회를 열고 민족 자결 주의의 움직임과 서울에서의 독립 선언 및 만세 시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모두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선두로 하여 마을을 일주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 지대이므로 일제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여 방해도 없었기 때문에 시위 행렬은 평화적이었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약 1시간 반 동안의 시위 행렬이 있는 다음 오후 2시쯤에 만세 삼창을 끝으로 독립 경축회를 마쳤는데, 저녁 늦게 일경에게 사실이 알려져 4명이 검거되었다.

장산도와 무안 읍내에서 거시가 있는 뒤 군내 여러 곳에서 산발적인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연해안 각 지방에서는 3월말과 4월초에 걸쳐서 야간을 이용하여 산 위에 불을 피우거나 어선에 등불을 높이 달고 만세를 부르며 독립을 염원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